



문의 사항:

텍사스 관광청 한국 사무소

02-6250-7010

texas_korea@webershandwick.com

보도자료

텍사스 알라모,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선정 후보에 포함돼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중에 발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텍사스 '알라모(The Alamo)'를 포함해, 미국 내 5개 스페인 전도 요새(Spanish colonial missions)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후보에 포함됐으며 그 결과가 오는 7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San Antonio)의 중심에 있는 스페인 전도 요새들은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여러 문화가 얽히고 역사가 급변하던 시기를 상징하며, 이러한 역사의 온전하고 건축적인 재현이자 세계적인 유산이다. 건축, 고고학적 유물과 및 특징적인 풍경을 모두 갖추고 있어 큰 가치를 갖는 이 유적이 유네스코가 지명한 리스트에 들어갈 경우 스톤헨지와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를 이어 세계 문화 유산 목록에 합류하게 된다.

요새의 역사

북미에 있는 스페인 전도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큰 이 요새들은 미션 콘셉시온 (Mission Concepción), 미션 산 호세(Mission San José), 미션 산 후안(Mission San Juan), 미션 에스파다(Mission Espada), 그리고 미션 산 안토니오 발레로 더 알라모(Mission San Antonio de Valero: the Alamo)로, 1700년대 초에 지어졌으며 스페인의 비호 아래 미국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전도하고 지역 개발을 도왔던 곳이다.

샌 안토니오 강을 따라 자리 잡은 다섯 개의 요새들은 서로 7마일 이내의 반경에 있어 매우 가깝다. 수십 년을 버텨온 이 유적들은 멕시코와 텍사스 공화국의 통치를 거쳤으며, 텍사스 원주민의 전통과 스페인 문화가 혼합되어 독보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요새들은 텍사스의 결정적인 역사와 유산의 기반이 되었으며, 텍사스를 미국 내에서도 유일무이한 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샌 안토니오에 그 특별함을 불어 넣은 것은 물론, 텍사스의 라티노, 원주민들 그리고 서양 문화 유산의 기원은, 스페인 사람들과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협력을 통해 짝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의 요새를 경험하다

관련 요새들은 역사적인 보호 구역으로 매년 수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알라모를 제외한 모든 성채는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카톨릭 교구들로 주변 지역사회를 섬기고, 해당 성채에서 섬겨왔던 사람들의 후세들도 돌보고 있다. 마리아치 미사를 참석, 또는 여러 성채들을 돌며 하이킹을 즐기고 싶거나 혼자 편안한 관광을 즐기고 싶다면 과거 스페인이 점령했던 역사를 가진 이 곳들에서 다양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 **리버워크(River Walk)**

새롭게 확장 된 리버워크와 요새들이 최근에 연결되었다. 리버워크는 샌 안토니오 강을 따라 이어지는 정원으로 둘러 쌓인 산책로이며, 리버워크를 따라가면 이 도시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호텔과 레스토랑, 극장 등을 만날 수 있다. 리버워크를 통해 관광객들은 요새와 요새 사이를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으며 강에서 카약을 타고 이동 할 수도 있다.

- **300년 역사로의 시간여행**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외관과 고풍스러운 종탑들을 자랑하는 요새들은 지난 시대에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 모든 장소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으며, 관광객들은 투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들을 볼 수 있다. 주거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몇 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멋진 교회들이 있는 곳까지 걸을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오늘 날까지도 이용되는 에스파다 상수로(Espada Aqueduct)도 볼 수 있다.

- **박물관 및 영화 관람**

요새의 여왕이라고 자주 불리는 미션 산 호세(Mission San José)는 이상적인 관광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미션 산 호세 박물관은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 공예품들은 스페인 요새 내에 있었던 다양한 과업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현지에 있는 극장에서는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인 "Gente de Razón"을 30분 마다 상영해 주고 있는데, 이 영화는 18세기 텍사스 남부의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페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과 스페인 요새들의 당시 영향력을 보여준다.

- **더 알라모(The Alamo) 체험**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텍사스 알라모는 상징적인 성지와 롱 바락스(Long Barracks) 박물관, 음성 지원이 되는 투어를 제공하며, 수 많은 역사적 건축물과 기념품관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알라모는 역사 체험과 전쟁 재연 등을 통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샌 안토니오 관광청은 이번 7월부터 상기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사진이나 비하인드 컷, 보도자료, 링크 및 인터뷰 등은 www.WorldHeritageSA.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샌 안토니오의 역사적인 요새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여행을 위한 정보 등은 www.visitsanantonio.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